

신약성서 대비평본

-그 구조와 과제, 새로 개발된 본문비평 방법-

바바라 알란트*

전통적인 정의에 따르면, 본문비평은 이른바 원래의 본문을 찾아내어 검증할 수 있게 근거를 제시하는 것을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본문비평의 선배들은 이를 위해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하나의 방법론을 개발했습니다. 본문비평은 전승 과정에서 생긴 명백한 오류로부터 출발합니다. 이 경우의 오류란 서로 관련 없이 독자적으로 생긴 오류가 아니고 전승에 사용된 하나의 대본에서 인수되었음에 틀림없는 오류를 가리킵니다. 여러 개의 사본이 같은 오류를 드러내 보이면, 이 사실은 이 사본들을 하나의 부류로 '묶어 주는' 셈이 됩니다. 이러한 '연쇄 오류'에 근거하여 그 전승의 계보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 계보의 '원초 형태'는 최선의 경우에 그 전승의 출발점 본문이었습니다. 이 방법론에는 몇몇 어려움이 따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오류, 더욱이 중대하고도 결정적인 오류를 우리의 오성의 힘으로 확실하게 사실 그대로 인식할 수 있다는 그러한 확신을 더 이상 우리의 위대한 이전 세대들이 가졌던 것처럼 그렇게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는 신약성서 저자들의 문체며 의도를 실제로 그렇게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원래의 본문에 가까운 비판적 본문을 확정하는 일을 전적으로 포기해야만 합니까?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내적 판단 기준이 안고 있는 주관성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내적 판단 기준의 주관성이라는 것은 어느 독법(=읽기)이 근원적인 것이며 나머지 모든 독법(=읽기)은 그것에 의존하는 지를 본문 내재적 내용에 근거하여 결정하는 판단을 뜻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본문비평 작업에 외적 판단 기준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약성서 대비평본이 수행할 가장 중요

* 윈스터 대학교 교수(신약학). 윈스터 신약본문연구소 소장.

한 과제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는 이제 이 판본=이 대비평본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런 다음에 대비평본에 제시된 자료들의 평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로써 무엇을 달성할 수 있으며, 이미 달성한 것은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현재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신약성서 대비평본의 과제 및 여기에 제시된 해결책

본문비평을 하는 데 있어서 내적 판단 기준을 철폐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자명합니다. 그렇지만 외적 논증을 통해서 지금까지보다 그것을 더욱 효과적으로 뒷받침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적 판단 기준, 즉 각 사본의 가치와 그것의 신빙성 또는 개개의 오류 노출에 대한 우리의 통찰력이 개개의 사본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나머지 모든 사본들과 관련지어서 향상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눈에 두드러지기는 하지만 확실하게 결정할 수 없는 이독법(=다른 읽기)에 따라서 본문비평을 수행하고자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본들의 성격과 그것들의 상호 의존성은, 사소하지만 확실하게 결정지을 수 있는 다량의 독법을 통해서 훨씬 더 믿을 만하게 확정할 수 있습니다. 이들 독법 가운데에 어디에 원래의 본문이 놓여 있는지를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독법이 오직 소수의 증거 사본에서만 그렇게 읽혀지고 있을 경우에 더욱 그러합니다. 아래에서 서술할 본문비평의 새로운 방법은 바로 이러한 인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본문비평 방법은 대비평본의 출간을 통해서 가능해 졌습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결정할 수 있는 이독법들로부터 출발해서 여기서부터, 어렵게 전승된 이독법 단위 혹은 이독법을 추론해 냅니다.

그러면 신약성서 대비평본이 수행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우선 다루고자 합니다. 세 가지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첫째로, 이 판본은 관련 있는 모든 자료를, 즉 그런데 그것도 검증할 수 있는 모든 관련 자료를 담아야 합니다. 둘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본은 자료들에 대한 전체 개관이 가능해야 합니다.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꿰뚫어 볼 수 없는 것이라면, 아무에게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셋째로, 이 판본은 모든

본문비평적인 관심에 사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비로소 작업해 내야 하는 결과들을 미리 선취해서는 안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집자들이 그 자료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자기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점은 마찬가지로 분명합니다. 그 편집자들은 결국 하나의 비평적 본문을 구성해야만 합니다.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 세 가지 과제를 어떻게 충족시키려고 했는지를 아주 간략하게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사본들의 선택과 관련하여: 총 530개에 달하는 공동서신의 사본들을 모두 제시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담고 있는 하나하나의 사본은 꼼꼼히 검사한 것이라야 합니다. 검정 구절들을 선택하고 모든 사본들을 이것들과 대조시킵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약 2/3에 달하는 사본이 동일한 본문, 즉 비잔틴 본문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정했습니다. 이들 사본 가운데서 단지 몇몇 대표적인 사본들만 대비평본에 수록해야 했습니다. 나머지 모든 사본들, 즉 (모든 검정 구절에서) 적어도 10% 가량 대다수 본문에서 벗어나는 모든 사본들은 각각의 독법과 함께 완벽하게 대비평본 안에 기록해 넣었습니다. 이 사본들 가운데에는 본문의 역사와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있는 것은 다 들어있습니다. 이 사본들은 아래에서 언급하게 될 인용문이나 번역본에서 나온 자료와 함께 첫 번째 천년 기간에 보존된 모든 이독법을 담고 있습니다. 제외된 것은 이따금씩 후대에 생긴 단일적인 오류들을 지닌 거의 순수한 복사본들 뿐입니다. 이것들은 본문의 역사나 원 본문을 구축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밖에도 대비평본은 성구집에 관한 자료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르의 본문 전승 담지자가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그것들이 비잔틴 본문에 속한다는 사실이 새롭게 입증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 교부들의 인용문이 중요한데, 이것들은 7/8 세기에 이르기까지 요한 다마스케누스의 글은 물론 이요 더 후대의 작가들(포티오스, 거짓 외쿠메니우스)의 글도 담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른 시기의 중요한 번역들(라틴어, 시리아어, 콥트어)도 완벽하게 각 구절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한 인용 절차가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언제나, 번역을 할 때에 대본으로 사용된 그리스어 사본을 재구축할 수 있는 번역본만을 인용하기로 했습니다.

제공된 자료의 개관 가능성에 대하여

(별지 1)

대비평본의 각 면은 세 가지 주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1) 낱말 하나 하나 새롭게 구축된 본문을 제시한 선도열(先導列)
- 2) 각 해당 부분의 모든 이독법을 개관할 수 있도록 고안한 이독법 표시판
- 3) 이독법들이 그 증거물과 함께 인용되어 있는 증거 장치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제시함에 있어서 각 절의 낱말 하나 하나에 아라비아 숫자를 붙여 놓았습니다. (각 절에 등장하는 모든 낱말에는 짝수 숫자를 붙이고 모든 중간 여백에는 홀수 숫자를 붙였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숫자 시스템을 이용하여 논의의 주소를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 숫자 시스템의 도움으로 증거 장치의 각 부분 사이에 개재된 관련 사항을 표제어를 반복하지 않고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비평 장치와 부정적인 비평 장치를 혼합함으로써 광범위하게 제시된 자료를 신속하게 개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야고 보서는 - 네스틀레 신약성서의 10 면을 차지하고 있는데 - 차이가 나는 곳을 800개 이상이나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 본문비평적 사실에 속합니다. 이들의 거의 모든 곳에서 단지 극소수의 사본만이 나머지 대다수 사본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체 그리스어 증거물을 제시하는 것은 무의미할 것입니다. 따라서 15개 미만의 증거물이 본문 제시란에 제시되어 있는 구축된 본문에서 벗어나고 있는 모든 경우에, 세계의 점으로써 그리스어 증거를 가리키도록 했습니다. 그 배후에 숨겨져 있는 것은 언제나 쉽사리 추정해 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계적인 이유로 누락된 사본들은 모두 각기 차이가 나는 곳마다 언급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의 세부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신약성서 본문과 관련한 모든 학문적인 작업에 대비평본이 얼마나 유용한가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자료를 제공하는 데서 미래의 어떤 결과를 미리 선취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또한 다른 이유들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으로 이해한 사본집단이나 사본가족은 하나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전승의 미세 구조에 관한 모든 정보는 자료를 제시하는 자리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각각의 본문비평적 그리고 주석적 관심에서 그것을 해석하는 데 자유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Byz라는 부호 역시 하나의 본문비평적인 집단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호는 단지 실용적인 이유에서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인데 비잔틴 본문의 특징을 이루는 전체 이독법 가운데서 최소한 80% 정도가 이 본문과 일치하는 모든 사본들을 총괄해서 가리킵니다. 우리의 대비평본에는 97개의 비잔틴 사본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각 분책(分冊)에 속한 자료집은 대비평본이 감당할 과제의 짐을 덜기도 하며 보충하기도 합니다. 자료집의 정보는 비평장치가 제공할 수 있는 것 이상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약어표시와 사본 목록표 이외에도 야고보서에 들어 있는 비잔틴 독법도 담고 있고, 또한 사본에 들어 있는 공백과 오류에 관한 정확한 정보, 그리고 비평장치에 나타난 교부인용의 출전과 번역본 표시에 대한 설명 등등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여러 차례 검사를 거쳐서 관계된 데이터 은행에 수용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대비평본을 오류 없이 인쇄하는 것이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제는 이러한 데이터 은행의 도움으로, 본문비평적인, 통계적인, 그리고 주석적인 방법들을 서로 결합시킨 연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약성서의 각 문서 집체에 대한 연구서는 우리의 본문비평적인 자료평가를 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난해하게 전송된 구절들에 대한 본문비평적인 주석과, 모든 사본의 전체 맥락에 나타난 본문 성격 규정 및 본문의 발전과정 등 사본에 대한 서술과, 사본들의 전체 족보를 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개선되고 발전된 외적 판단 기준의 도움으로 신약성서 본문은 더 확실한 근거 위에 세워야 할 것입니다.

2. 자료 평가

2.1. 평가의 전제

대비평본에 제공된 증거물들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념들은 서로 구별해야 합니다.

원래의 본문은 저자의 본문입니다. 이것은 분실되었지만 본문비평의 수단으로써 직접적으로는 재구축할 수 없습니다.

전승의 출발점 본문은 현재 보존되어 있는 전체 전승이 출발점으로 삼는 본문형태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원래의 본문에 근접하지만, 그대로 원래의 본문과 동일시될 수는 없습니다.

구축된 본문은 전승의 출발점 본문의 형태를 가정해서 추정된 가장 짧은 형식의 본문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대비평본에서 본문 제시란에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이 구축된 본문으로써 전승의 출발점 본문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재구축 하려고 시도합니다.

원칙적으로 중요한 것은, 필사자들은 그들의 대본을 정확하게 복사하기를 원했으며 또 그렇게 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정이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승의 족보 구조를 재구축 할 수 있습니다. 사정이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전승의 출발점 본문이 원래의 본문에 근접한다는 사실을 또한 추측 해낼 수 있습니다. 비록 이른 시기의 사본들이 종종 오류를 띠고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필사자들은 교정에 사용할 더 좋은 대본을 구할 수 없을 경우에, 그들은 추측하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오류가 야기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필사자들은 있는 그대로 베껴 쓰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본문을 신학적·교리적으로나 문체적·언어적으로나 변경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대본에 오류를 추정하기 때문에, 본문을 바꾸거나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아무런 체계 없이 바꾸었을 따름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 점을 한 가지 실례를 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3-51절은 시므온의 찬송에 대한 요셉과 마리아의 반응과 열두 살 짜리 예수가 성전에서 행한 일을 다룹니다. 비교적으로 짧은 이 본문 구절에서 아주 거칠게 쉽사리 그 의도를 드러다 볼 수 있는 변경된 것들을 접하게 되는데 이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필사자에게 소급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염두에 두고 있는 모든 구절에서(눅 2:33, 41, 42, 43, 48) 문제가 되는 것은, “요셉, 예수의 아버지” 또는 “예수의 부모”와 같은 개념이 동정녀 탄생 사상에 명백히 모순되지 마는 용인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별지 2)

언급한 모든 구절에서 원래의 본문 또는 더 정확히 말해서 전승의 출발점

본문은 의심의 여지없이 예수의 부모로서 요셉과 마리아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은 거침없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 모든 구절에 이독법들이 전승 자료에 존재해 있습니다. 이 이독법들은 “요셉과 그의 어머니” 또는 “우리”에 대하여 말하거나 거리낌을 일으키는 주어를 전적으로 삭제하고 그저 “우리”라고 말함으로써(248) 걸림돌을 제거했습니다(개관 참조). 필사의 실제작업에 아주 두드러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거물 가운데 어느 하나도 모든 구절에서 일관성 있게 바뀌어진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본 전승의 유려성과 정확성으로 잘 알려진 비잔틴 본문조차도, 즉 비잔틴 교회의 정통 본문조차도, 단지 두 곳에서만 무해한 어투로 바꾸었습니다. 직접으로 그 곁에 나타나 있는 걸림돌들은 바꾸지 않은 채로 놓아두었습니다. D 사본과 몇몇 고대 라틴어 번역본은 심지어 눅 2:42에 무해한 표현인 *αναβαινοντων αυτων*(그들이 올라갔다) 대신에 “그의 부모가 그와 함께 올라갔다”라고 써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본들은 일정한 규칙이 없이 본문에 손질을 한 것입니다. 본문을 바꾸는 데 있어서, 일관성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본들은 일반적인 수정 작업을 했다는 증거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한 작업을 가정하고자 한다면, 일관성 있는 작업을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흔적은 이 곳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정 역시 규칙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교정자들이 범하는 비교적 작은 오류는 심지어 어느 정도는 용인한 것처럼도 보입니다.

끝으로 다음과 같은 마지막 사항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대비평본에서 어떠한 본문유형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본문유형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의가 통용되고 있습니다 (E. J. Epp를 인용합니다). “본문 유형. 비록 처음 몇 세기 동안에 신약성서 본문형성에 대하여 완전한 의견 일치가 없지마는, 설득력 있게 논증할 수 있는 사실은, 합리적으로 구별되는 집단들 가운데서 세 개의 본문 동아리 또는 본문 분포를 찾을 수 있다는 것, 또한 각 동아리는 파피루스 사본들 가운데서 가장 이른 시기의 대표를 찾을 수 있으며 다음으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주요 대문자사본으로 옮겨간다는 것이다.”(Epp, “Textual Criticism”, in *The Anchor Bible Dictionary*, Vol. 6, 430-431). 에프는 다양한 본문유형에 대하여 그때그때 단지 소수의 증거물을 맵니다. 즉 “B 본문 집단”(P75, P66 B & L

33 1739), “D 본문 집단”(P29. 48. 38. 0171), 또한 “B와 D 본문집단 중간에 위치한” “C 본문 집단”(P45와 W), 그리고 파피루스 사본에 대표가 없는 이른바 비교적 후대에 생긴 본문 동아리로서 비잔틴 본문집단으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9세기까지 전승된 사본들 가운데 단지 극소수만이 이른바 집단으로 묶을 수 있으며, 이들 역시 서로 간에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는 명백합니다. 이른 시기로 부터 보존되어 있는 사본은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른 시기의 두 사본이 서로 간에 밀접히 연관된 경우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P75 사본과 B 사본이 그러한 본보기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극히 드문 예외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이른 시기의 사본들 간에 나타나는 차이는 상당히 커서, 이른 시기의 각각의 파피루스 사본과 이른 시기의 각각의 대문자 사본은 그 자체 하나의 독립된 “본문유형”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늦은 비잔틴 전승의 밀집도를 고려할 때에, 이 사실은 더욱 더 타당합니다. 비잔틴 본문 영역 내에는 수많은 사본들 가운데서 가장 가까운 친족사본들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그 하위 집단들이 의식적으로 형성된 본문유형이라는 인상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2.2. 새로운 평가 방법

자료를 평가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계보 수립적 방법에 하나하나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우리 윈스터 연구진의 밉크가 개발한 것입니다. 이 방법의 원리는, 전승 구조 또는 총체적인 계보를 획득하는 데 놓여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독법이 나타나는 모든 곳에 가해진 엄청난 수의 개별적 결정을 근거로 해서 획득합니다. 밉크의 방법은 두 단계로 진행합니다. 이독법이 나타나는 모든 구절에서 우선 지역적 계보를 수립합니다. 이것은 본문의 어느 한 곳에 대한 독법을 평가하는 데 이용되는 내적 판단 기준과 외적 판단 기준에 근거해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수행됩니다. 독법들 사이의 계보적 결속은 이러한 지역적 계보에 표현됩니다. 이런 현상은 이 독법들의 증거물 사이에 연관관계가 있으리라는 진술을 또한 함축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확실하게 결정할 수 있는 이독들만을 평가하고 고려합니다. 그러한 구절들이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합니다. 단지 두 세 개의 사본만이 실수로 나머지 전체 사본들로부터 벗어나는 경우에는(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본래의 본문은 다수의 증거물이 증거하는 독법으로 임혀진다는 사실이 대체로 명확함

니다. 확실하게 결정할 수 있는 구절들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증거물 상호간의 평균적인 태도에 관한 일차적인 전체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하여, 결정하기 어려운 구절들도 해결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이 방법을 적용할 때에, 원래의 모습에 가까운, 이제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일련의 사본들이 총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러한 사본들의 질은 주요한 대문자 사본들의 질과 충분히 견줄 만합니다. 여러분이 야고보서에서 우세를 이루고 있는 본문 물결에 대한 다음과 같은 배경을 들여다보면 원래의 모습에 가까운 사본들이 드러납니다. (별지 3) 이들 사본은 전승(A)¹⁾의²⁾ 출발점 본문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cf. P74, P100; 01; ...). 본문을 구성하는 데 이 증거물들은 특별히 중요합니다.

이 원래의 모습에 가까운 사본들에 대하여 새롭게 획득한 인식에 근거하여, 베드로서신에서 본문을 15 군데에 네스틀레-알란트 27판(이하 NA 27판으로 표기)과 다르게 구축할 필요가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리스어 신약」(*Novem Testamentum Graece*: 이하 NTG로 표기)의 본문이 웨스트콧-호트의 「그리스어 신약」(1881)과 함께 시작되는 오랜 본문비평적 전통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것은 보잘것없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나타난 중요한 본문변경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NA27판과 「그리스어 신약」(*Greek New Testament*; 이하 GNT로 표기)에는 본문은 ... εν τῷ ὀνόματι τούτῳ(="이 이름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εν τῷ μέρει τούτῳ(="이 일로")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선 εν τῷ μέρει τούτῳ는 더 어려운 독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곳의 문맥에 이미 εν τῷ ὀνόματι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4:14). 그래서 그것이 4장 16절에 채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적 판단 기준에 비추어 볼 때에, 어느 정도는 εν τῷ μέρει τούτῳ가 뒷받침됩니다. 이와 반대로 외적 판단 기준에 따라 판단하면, εν τῷ ὀνόματι τούτῳ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P72. 01. 02.

1) 주의해야 할 것은 사본들의 번호는 언제나 그 사본들의 본문을 가리키는 것이 고문헌학으로서의 원고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본문이 증거물이다. 고문헌적 낱짜를 가진 원고지는 그 본문이 태어난 최소한의 최고 시점만을 우리에게 지시할 따름이다."

2) "(A)"는 독일어 각주의 첫 자로서 번역상 불필요하다.

03. 945. 1175. 1739. 이것들은 모두 우수한 사본들입니다. 이와 달리 비잔틴 본문과 일련의 비잔틴 본문 혈통은 εν τῷ μερεῖ를 증거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계보적 연구방법에 따라 증거의 분석을 좀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별지 4)

일련의 증거물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εν τῷ μερεῖ τούτῳ를 증거 합니다. 이 증거물들의 - 이들의 가장 가까운 또는 거의 가장 가까운 조상은 전승의 출발점 본문입니다. 전체 비잔틴 본문은 바로 이들 증거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코이네 사본과 친족관계에 있는 몇몇 다른 사본들도 또한 여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εν τῷ ὀνόματι τούτῳ에 대한 증거는 다음과 같아 보입니다.

(별지 5)

03은 ὀνόματι로 읽고 있습니다. 03의 가장 가까운 조상은 A이기 때문에, ὀνόματι 라는 이독법은 아주 일찍이 출발점 본문으로부터 03의 본문으로 가는 도상에서 생성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03에 의존하는 모든 사본들은 εν τῷ ὀνόματι τούτῳ를 거기에서부터 추후적으로 따왔습니다. 그런데 이 이독법은 역사에서 최소한 두 번 발생했음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Folie 2 오른쪽에 표시된 모든 사본들은 역시 ὀνόματι라는 이독법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 사본들은 자기들의 조상으로 03이 아니라, 비잔틴 본문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언급한 증거물들은 비범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독법인 μερεῖ를 ὀνόματι로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이해할 만합니다. ὀνόματι라는 낱말이 문맥에 나오며, 따라서 (비록 원래적인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훌륭한 추측교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대비평본에 근거한 이제까지의 본문비평적 작업이 이루어낸 하나의 중요한 결과는 이러한 이독법들에서 드러납니다. 웨스트콧-호트 이래로 우리가 지금까지 늘 배웠던 것은, 비잔틴 본문은 신약성서의 가장 나쁜 본문 형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합니까? 여기서 우리는 정확하게 구분해야 하며 또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비평본에는 선택해 놓은 모든 사본들의 이독법 전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비잔틴 본문이 야고보서에서 800

군데 이상이나 되는 이독법에서 벗어나는 곳은 단지 69 군데뿐입니다. 폐쇄된 집단으로서 이것만이 나머지 사본들의 독법과 다릅니다.

이 69 곳을 대비평본에 모아놓았는데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즉 이들은 과반수가 코이네 본문을 매끄럽게 다듬어 손질한 것임을 잘 드러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매끄럽게 다듬기 손질은 본문에 *우연히* 산재해 있는 것이지, 난해하게 전승된 곳을 체계적으로 교정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비잔틴 본문은 또한 거친 표현과 명백한 오류도 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다 필사자의 훌륭한 신실성을 통해서, 그리고 교정자의 사려성에 근거하여 전승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잔틴 본문은 어떤 체계적인 수정 작업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단지 비잔틴 사본들의 고도의 보존 밀도와 또한 필사자의 조심성 때문에, 비잔틴 본문이 하나의 다듬어진 형태로서의 본문유형을 이루고 있다는 인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비잔틴 본문은 야고보서의 69 군데 제외하고서는 - 이 곳에서 비잔틴 본문은 나머지 사본들의 독법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 하나의 훌륭한 옛 본문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잔틴 본문은 어떤 독법을 위한 결정을 내리는 데 증거물로서 역할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한 좋은 예가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나오는 *μερείονοματι*라는 이독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잔틴 본문을 어떤 독법을 위한 증거물로 삼고 중히 여길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요약하겠습니다.

1. 대비평본은 원천 자료를 총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G. 링크가 개발한 새로운 계보적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대비평본은 본문비평을 위한 외적 판단 기준들을 강화시킵니다. 모든 사본의 전체 문맥에서 본 증인의 본문 가치에 대한 지식이 엄청나게 확대됩니다.
3. 근원에 가까운 일련의 사본들이 알려지게 되었는데, 이 사본들에는 부분적으로 전승의 출발점 본문으로 나아가는 직접적인 통로가 있습니다. 이들 사본들은 본문의 가치에 있어서 B와 **N**의 가치보다 그다지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의 경우에는 이들은 심지어 **N**보다도 우수합니다).
4. 근원에 가까운 이 새로운 사본들 때문에 본문비평적인 결정들을 내적

판단 기준에 근거하여 새로이 내려야만 합니다. 내적 판단 기준은 그 중요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른바 사본들의 외적 본문가치에 대하여 엄청나게 확대된 지식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5. 따라서 본문비평의 새로운 방법은 항상 검증 해야 할 개개의 결정들이 항상 서로 맞물려 간섭하는 데 성립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방법은 전체 맥락 속에서 차지하는 본문 가치와 증거물의 위치에 대한 지식이 성장하는 데서 발전합니다.

이로써 본문비평이 보다 쉬워졌다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참신하고 새로우며 또한 흥미진진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략 100년간 본문이 주로 A와 B의 증거에 따라서 구성되던 시기를 우리는 드디어 넘어서게 된 것입니다. B 사본은 비록 가장 잘 보존된 사본이라는 영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B 사본의 뛰어난에 대하여 그리고 또한 그 오류에 대하여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새로운 판단 기준들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작업에 참여하는 것은 보람 있는 일입니다.

(김창선 번역)